기부에 대한 새로운 생각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피터 싱어 | 산책자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매일 출근길에 지나치는 공원에는 작은 연못이 있다. 연못은 그리 깊지 않아 성인의 허리 정도까지 밖에 잠기지 않는다. 그런데 연못에 3살 된 아이가 빠졌다. 어른에게는 별 것 아닌 깊이지만 아이에게는 치명적이다. 자,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도 당신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다만 옷이 물에 젖고, 회사에 지각하는 정도의 위험만 감수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라면 당연히 옷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아이를 구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희생할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부의 윤리학

여기까지 동의했다면,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커피 한 잔을 안 먹는 대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세계적인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가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에서 말하고 싶어한 '기부의 윤리학'은 매우 단순한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이 앞에 있고, 나는 그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치를 희생은 거의 없는데도 그를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윤리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부를 거절할 때 우리가 내세우는 논리들

하지만 기부를 권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기부를 거절하곤 한다. 가장 쉽게 드는 이유는, 돈이나 식량을 공짜로 주면 의존하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우선은 생명을 구하고 의존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지원하는 방법은 차후에 고민할 일이다.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아닌 사람들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반구에서 '평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노동력과 원자재 등을 싼 값에 이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오염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봉사와 기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빈곤의 제도적 원인, 즉 현실적인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물론 체제의 개혁도 중요하다. 하지만 바라는 대로 혁명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미래의 혁명을 위해 지금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부를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윤리적 판단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고 기부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행위라고. 여러 가지 심리 실험들은 인간의 본성에서 이기심이 큰 영역을 차지함을 보여주긴 한다. 예를 들어 멀리 있는 불특정 다수보다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을 더 잘 돕게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알고 있는 사람을 더 돕고자 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 생각하면 아예 참여를 거부하고, 10만 명의 1%(즉, 1천명)을 구할 때보다는 1백 명의 50%(즉 50명)을 구할 수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실험 결과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고 번성하는데 도움이 된 행동 패턴이었을지언정, 오늘날 매우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나 우리 자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직관과 행동 방식에 아직도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일부 있을지 몰라도, 다윈 스스로 인식했듯, 그것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 (…) **인간 본성의 진화론적 이해는 우리가 다수보다 개인을,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느끼는 직관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이기적으로 살아야 할까? 윤리의 개념을 아는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기부 문화 만들기

책에서는 앞서 말한 여러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부의 문화를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한다. 우선 어떤 단체에 기부할 것인지를 정한다. 나의 기부금이 단체의 운영보다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단체를 찾아야 한다. (실제 많은 미국인들이 기부를 하지만 주로 종교기관이나 대학, 문화예술 후원 등으로 쏠리고, 실질적으로 저개발국가 사람들을 돕는 데에는 전체 기부액의 10% 미만이 사용된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을 파악하고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기부할지를 따져본다. 여기서 대체 얼마만큼을 기부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설 수도 있다. 윤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해야 한다.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 소중하니 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사람들을 오히려 기부 문화에서 더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피터 싱어는 보다 완화된 기부의 공식 기준을 제안한다. **"경제적으로 웬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연소득의 약 5퍼센트를 기부한다. 그리고 더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이 낸다."** 이 정도라면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지 않고도 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기부금액과 방법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선행을 베풀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 대부분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신도 기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기업이나 기관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다면, 직원들을 기부에 참여하게 하는 '넛지'를 해보자. 간단하다.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도록 '디폴트'를 설정하면 된다. 기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소득의 1%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기부를 '디폴트' 조건으로 정해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거부감 없이 기부에 참여하게 된다.

인간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인권운동가인 헨리 스피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단지 상품을 소비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이 인생을 돌이켜보며 자신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은 남들을 위해 자신이 사는 곳을 좀더 좋은 곳으로 만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세상에 있을까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실제로 도와야만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 소득의 5%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월 1만원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보자. 그리고 1년 후에는 기부금액을 더 올리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이것은 실제 경험담이다.

교보문고[북모닝CEO]편집팀